

눈길 끄는 문화상품으로...5·18의 재탄생

日 도쿄 상영 '5·18 힌즈페터 스토리' 다큐 전석 매진 40주년 맞아 '나와라 오버' '무등세상' 창작극 2편도 주먹밥·바가지 유산균 등 '5월 굿즈'도 잇따라 출시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담은 문화 콘텐츠 상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현대사의 무게감과 엄숙주의에서 탈피, 세대·지역을 아우르며 5월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5·18 다큐영화, 일본에서 초청 상영돼 = '5·18 힌즈페터 스토리'라는 다큐영화는 지난 15일 일본 도쿄 신주쿠 나가노제호홀에서 상영됐다. 1980년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린 독립 제1공영방송 카메라 기자인 고(故) 위르겐 힌즈페터가 실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장영주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로, 이날 전석 매진됐다.

이날 영화 상영은 재일교포인 영화 관계자가 5·18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광주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에는 힌즈페터씨의 생전 인터뷰와 그가 당시 촬영했던 영상 등이 포함돼 80년 광주의 참혹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 감독은 "상영이 끝난 뒤 오사카와 히로시마 등 다른 지역 영화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 감독은 지난 2003년 KBS 다큐 '푸른 눈의 목격자'를 제작했다. 지만원 등 왜

곡 세력들이 5·18을 편취하는 것을 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인인, 기자 힌즈페터를 취재했다는 게 장 감독 설명이다.

그는 2016년 1월 힌즈페터씨가 한국에 들릴 때마다 한국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장 감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힌즈페터씨와 인연이 끊어졌고, 이런 가운데 힌즈페터씨의 부고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는 2016년 1월 힌즈페터씨의 부고를 접했으며 이후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에 영향을 받아 지난 2018년 5월 17일 한국에서 개봉했다. 개봉 당시 다큐영화로서는 많은 관객인 1만명이 찾아왔다.

5·18 문화콘텐츠는 세대·지역·이념을 아우르며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소개되고 있다.

영화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을 비롯, 연극 '푸르른 날에', '짬뽕',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은 나올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콘텐츠는 '5월 광주'를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대를 초월한 문화로 승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로운 5·18창작극 선보여 = 5·18기념



5180주먹밥 세트.



'5·18 힌즈페터 스토리' 일본 포스터

재단은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5·18 창작극 2편을 준비했다. 극단 토박이의 '나와라 오버'와 극단 신명의 '무등세상'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와라 오버'는 시장 상인들이 노래 대회에 참가를 위해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일로, 이중 한명의 여동생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실종된 행방불명자로 이를 찾는 이야기이다. 광주 민중항쟁을 주제로 민중가요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창작극은 지난해 12월 오월문화제에서 초연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5월 초연할 '무등세상'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시민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들불야학의 사랑방 역할을 한 광천시민 아파트는 이곳에서 제작한 '투사회보'를 들고 광주항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학살과 맞섰다. 특히 이 두 편의 새로운 창작극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5·18을 알리기 위해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오는 6월과 11월에 집중공연될 예정이다.

◇주먹밥·바가지 유산균, '5월 굿즈' 잇따라 = 광주 서구지역 마을기업인 '바이오사이트협동조합'은 5·18을 상징하는 주먹밥 모양의 빵과 바가지 형태의 유산균 음료를 상품화해 판매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 80년 5월 나눔의 대동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에서 착안한 주먹밥, 시민군들에게 바가지에 물을 떠 나눠줬던 당시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바가지 유산균 음료를 제작·판매하는 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마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서구의 구상이다.

마을기업측은 수익금 일부를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제과제빵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주먹밥도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을 연 광주주먹밥 전문점(1호점) '밥콘서트(Bob Concert)'에서는 5180주먹밥세트를 비롯한 16종의 주먹밥 메뉴를 맞출 수 있다. 가격도 5180원(부가세 제외)으로 책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6 **달뜨기** 03:11 **해질** 18:17 **달집** 13:19

찬바람 씩씩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눈온후 갬	-1/6	보성	눈온후 갬	-2/6
목포	눈온후 갬	0/4	순천	눈온후 갬	-3/7
여수	눈온후 갬	-2/7	영광	눈온후 갬	-1/4
나주	눈온후 갬	-2/7	진도	눈온후 갬	0/6
완도	눈온후 갬	1/7	전주	눈온후 갬	-6/5
구례	눈온후 갬	-3/5	군산	맑음	-3/4
강진	눈온후 갬	-1/6	남원	구름많음	-6/5
해남	눈온후 갬	-1/6	흑산도	눈온후 갬	2/6
장성	눈온후 갬	-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완반다	서~북서 1.5~3.0	서~북서 1.0~2.0	
	면반다(북)	서~북서 2.0~4.0	서~북서 1.5~3.0	
	면반다(남)	서~북서 2.0~4.0	서~북서 1.5~3.0	
남해 서부	완반다	서~북서 1.5~3.0	서~북서 1.0~2.0	
	면반다(서)	서~북서 3.0~5.0	서~북서 2.0~4.0	
	면반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1.5~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17	10:01
여수	15:48	22:05
	11:57	05:42
	23:42	17:29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	☀	☁	☁	☀	☀	☁
-2/11	2/14	2/15	6/12	1/13	4/13	5/13

◇생활지수

- 보통
- 감기
- 보통
- 뇌졸중
- 좋음
- 미세먼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 학부모 자치기구 운영 필요” 시민단체 조례 개정 촉구

광주 교육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중·고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하도록 해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도 유치원 학부모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조례에는 여전히 학부모회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마스크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마스크 가격 폭등으로 마스크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7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북구관내 대형마트 약국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월출산·지리산 등 일부 등산로 통제

폭설로 항공기·여객선 결항도

대설특보 발효로 무등산 등 광주·전남 일대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 출입이 통제됐다.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리던 대설특보로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등 일부 탐방로 구간이 통제됐다.

무등산은 ▲광주 원효광장-늦재삼거리-바리재-도끼등(2.3km) ▲광주증심교-의재미술관-약사사(2km) ▲화순 오감연결길-배등골(0.8km) 등 총 3구간(5.1km) 구간만 개방하고, 나머지 모든 구간은 통제 상태이다.

전남 지역은 구례 성삼재 16km, 진도 윤림산방 3km 구간 등 도내 일부 산간 도로가 통제 중이다.

윤림산방 통행 제한은 18일 해제할 예정이다나, 산간지역인 성삼재 구간 통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부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하는 등 일상생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결빙돼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현명 기자 young@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위축 지역경제 돕기 나서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공동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분청 각과와 시교육청 모 든 직속기관, 유·초·중·고등학교를 포함 하는 등·서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회의 를 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공동 체 살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용 테이블과 업무용 책상에 꽃병 비치 등에 예산을 투입토록 했다.

또 경제단계에 이른 혈액 수급을 위 해 2월 마지막 주에는 교육청 모든 기 관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행사도 진행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2)322-6183